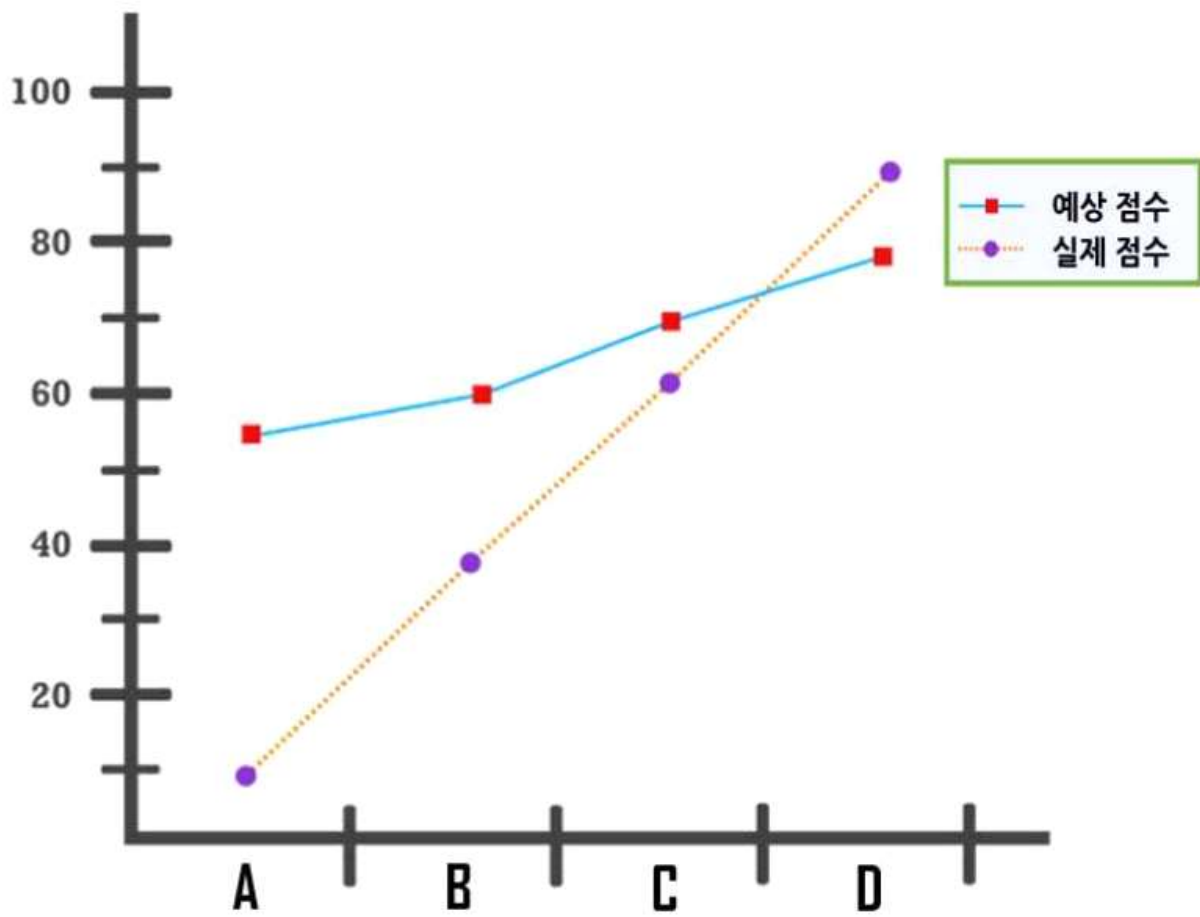


2024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수시/정시모집 적성 · 인성면접 [의과대학]

제시문 [1]

다음은 자기평가(Self-Assessment)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제시된 그래프이다.



제시문 [2]

1795 년 2 월 새벽, 정조는 창덕궁을 출발하여 현재의 수원 화성(華城)으로 갈 예정이다. 이 행사는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과 정조 즉위 20 주년을 기념한다. 행렬에 참여하는 인원은 약 1,800 명이며, 행사를 위해 동원할 인원은 6,000 여 명이다. 행사를 보기 위해 9,000 여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신은 위의 행사에서 8 편의 기록화(記錄畵)*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입니다.

*기록화

실제로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나 사실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하여 그린 그림



정조의 현릉원 행차(華城陵幸圖, 화성능행도), 김득신(金得臣, 1754-1822) 등,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대한민국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인 현릉원이 있는 수원의 화성에 가서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치렀을 때 행차와 잔치 모습을 그린 그림. 김홍도가 그린 원행을묘정리의궤(園幸乙卯整理儀軌)에 기초하여 이를 병풍 형태로 만든 것임. 국왕의 친림, 호위하는 군사, 관료들과 구경나온 일반 백성에 이르는 여러 인물들을 그렸고, 시정을 사실적으로 묘사함.

제시문 [3]

정현이와 선우는 지난주에 교내 수학 경시대회에서 공동 1 등을 하였다. 4 주 후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데 이 대회에는 학교마다 한 명의 학생만 출전할 수 있다. 담당 교사는 정현이와 선우에게 일주일 후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에 출전할 학생을 재시험을 통해 결정하자고 하였다. 정현이는 내일부터 중간고사 준비를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재시험으로 인해 공부 계획이 변경되어 아쉬웠다. 하지만 정현이는 중간고사 준비를 조금 미루고 일주일 후에 있을 재시험을 준비하기로 하였다.

제시문 [4]

전국시대(戰國時代) 위나라 관리인 방종이 적대국인 조나라로 위나라 태자(太子)를 호위하여 같이 인질로 가게 되었다.

위나라를 떠나기에 앞서 위왕(魏王)을 만나 방종이 말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와서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습니까?”

“전혀 믿지 못하겠네.” 위왕이 대답했다.

방종은 또 말했다.

“두 사람이 거리에서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실 수 있으십니까?”

“음, 반신반의인데.”라고 위왕이 말했다.

방종은 다시 “그러면 세 사람이 거리에 범이 나타났다고 하면 대왕께서는 믿으시겠죠?”라고 묻자

“그야 물론 믿고 말고!” 위왕은 서슴없이 대답했다.

방종은 태자와 함께 조나라로 떠났다.

이후 태자는 위나라로 돌아왔지만 방종은 위나라에서 볼 수 없었다.

제시문 [5]

임금이 신하들과 정사를 보고 있다. 참찬 김점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하시는 정사는 마땅히 금상황제(今上皇帝)의 법도를 따라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니, 예조 판서 허조는 아뢰기를, “중국의 법은 본받을 것도 있고 본받지 못할 것도 있습니다.” 하였다.

김점은 아뢰기를, “신은 황제가 친히 죄수를 끌어내어 자상히 심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하께서도 본받아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하니, 허조는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관을 두어 직무를 분담시킴으로써 각기 맡은 바가 있사온데, 만약 임금이 친히 죄수를 결제하고 대소를 가리지 않는다면, 관을 두어서 무엇하오리까.” 하였다. 김점은 아뢰기를, “온갖 정사를 전하께서 친히 통찰하시는 것이 당연하옵고 신하에게 맡기시는 것은 부당하옵니다.” 하니, 허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하께서 대신을 선택하여 육조의 장을 삼으신 이상, 책임을 지워 성취토록 하실 것이 마땅하며, 몸소 자잘한 일에 관여하여 신하의 할 일까지 하시려고 하서는 아니 됩니다.” 하였다.

제시문 [6]

(가)



예술가 데미안 허스트는 나비 수천여 마리의 몸통을 제거하고 날개만 사용하여 작품을 만들었다.

(나)



예술가 마르코 에바리스티는 트라폴트 미술관에서 'Helena'라는 작품을 전시했다. 이 작품은 물이 든 10 개의 믹서기 안에 살아 있는 금붕어를 넣어 놓고, 관람객이 믹서기의 작동 버튼을 자유롭게 누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제시문 [7]

선천성 질환을 출생 전에 높은 확률로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이 기술의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국제 회의가 개최되었다.

제시문 [8]

명백한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평등은 다소 복잡한 개념이고, 많은 개인들이 도달할 수 없는 도덕적 수준을 요구한다. 사람들은 차라리 인간의 다양성을 부인하고 평등을 동일성으로 대체해 버린다. 또는 단지 형태학적 특성만이 유전자에 의해 지배되고 마음의 나머지 특성들은 '조건화'나 다른 비유전적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에서 인류는 생물의 세계에서 예외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그런 사람들은 쌍둥이 연구가 보여 주는 결과와 동물의 비형태학적 특성을 유전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편리에 따라 무시해 버린다. 그렇게 명백히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한 이데올로기는 재앙으로 직결될 수 있다. 인간의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인간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일성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자마자 평등에 대한 지지도 똑같이 사라진다.

제시문 [9]

나는 공동주택 2 층에 살고 있는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다. 재작년에 이사 온 윗집과는 친분이 없고 가끔 집주변에서 만나면 목례(目禮)를 하는 사이이다. 윗집이 이사 온 후부터 간혹 밤 10 시를 넘어서까지 피아노 연주 소리가 들렸다. 늦은 시간에 들리는 피아노 소리가 불편하였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작년에 한번 피아노 소리가 크게 들려서 관리실을 통해 소음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다. 관리실은 윗집에서 “자녀 두 명이 피아노 전공으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서 조금만 이해해 달라”라고 했으며 의견을 전달했다.

올해 초부터는 밤 10 시를 넘어서까지 피아노를 연습하는 소리가 빈번하게 들렸다. 우리 집은 관리실을 통해 항의하였고 윗집에서는 “그동안 소리에 대해 별말 없었으면서 왜 이렇게 유난스럽냐, 우리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방음 처리를 했고 노력했다. 공동주택에 살면서 이 정도는 감수하고 지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오히려 반문했다고 한다. 나는 그동안 윗집 층간 소음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를 했다. 우리 집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위해 소음 측정기로 일주일간 매일 밤 10 시부터 5 분 동안 층간 소음을 측정했고 아래 기록을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윗집도 소송에 맞대응하겠다고 한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41 dB	20 dB	39 dB	40 dB	15 dB	30 dB	10 dB

※ 층간 소음 허용 기준은 주간(06:00~22:00) 45 dB 이하, 야간(22:00~06:00) 40 dB 이하임

※ dB 수준을 다음과 같이 가정함

20 dB: 조용한 독서실 소리, 40 dB: 일반 대화 소리